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3일(금) 총 7매			
담당 부서	해양친수과	담당자	• 친수공간시설팀장 권순광 ☎458-7156 • 담당자 신우창 ☎458-7157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힌 바다를 열어 보다 친숙하게
인천시, 시민과 바다를 잇다**

- 연오랑 등대 보행로, 아암대로 갯벌 산책로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
- 15억 8000만 원 투입, 내년 하반기 준공·개방 목표 -

달힌 바다를 열어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을 마련하는 인천시의 친수 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연안부두 역무선 계류장 연오랑 등대 주변과 남동구 아암대로 해안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안부두 역무선 계류장의 방파제 상부 폭을 확장해 조성하는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와 남동구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는 내년 하반기 준공·개방을 목표로 한다.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는 역무선 계류장의 방파제 상부(폭1m) 약

250m 구간의 폭을 2m 추가 확장하고 중간섬터를 설치해, 보행하면서 바다와 인천대교 및 입출항선박 등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는 바이오산업교부터 신항만교까지 조성된다. 송도매립으로 기능을 상실할 호안상부의 방파벽 1,100m를 철거해 친수보행로를 확장하고 유리벽 난간과 휴게 섬터를 설치한다. 해당구간 내 폐쇄된 2개의 군 초소는 철거하고 1개소는 리모델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수립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단기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으며 이에 앞서 인천시는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개소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준공·개방할 계획이다.

이한남 시 해양친수과장은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시민과 바다를 잇다. 2030 인천 바다이음’을 비전으로, 개방적·재생적·상생적·보전적·국제적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닫힌 바다를 열어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2030 인천 바다이음 비전
2.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개요
3.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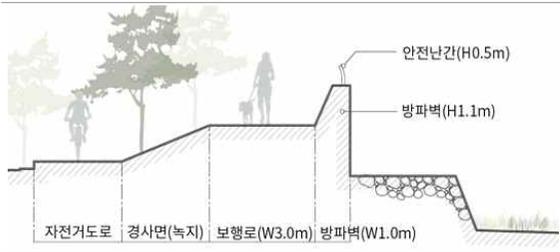
1. 2030 인천 바다이음 비전

바다이음 ①	바다이음 ②	바다이음 ③	바다이음 ④	바다이음 ⑤
개방적	재생적	상생적	보전적	국제적
해양친수도시	해양친수도시	해양친수도시	해양친수도시	해양친수도시
				
Story.1	Story.2	Story.3	Story.4	Story.5
닫힌 바다를 열린 공간으로 있다.	시간의 흔적을 새로운 기능과 있다.	섬마을의 낭만을 사람과 있다.	우리의 바다를 미래세대와 있다.	인천의 바다를 세계와 있다.

2.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위치	남동구 고잔동 978제 일원	항만구역
규모	초소 2개소(바이오산업교 인근 1개소)	L=1.1(km)
사업내용	친수조망데크 3개소(A=50㎡/개소, 친수보행로(방파벽철거, 안전난간설치) L= 1.1(km), 군초소 활용	A= 1,600(㎡)
사업추진방안	•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인천지방해양해수청
사업비	사업비: 815백만원(설계비 140백만원, 공사비 675백만원)	
연계사업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철책 철거, 보행로, 자전거도로, 전망데크 설치)	공사 중 ('21.4.~'21.12.)



대상지 현황 단면도



대상지 현황(View2,3,4)

나) 대상지 선정 배경 및 평가

» (배경) 기존 철책 철거구간 친수기능 보완 필요

- 기존 철책철거 사업이 완료된 아암대로(남동공간 일원) 구간에서 송도 습지보호지역 조망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 기능 확보필요.
-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조망 및 휴식형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친수기능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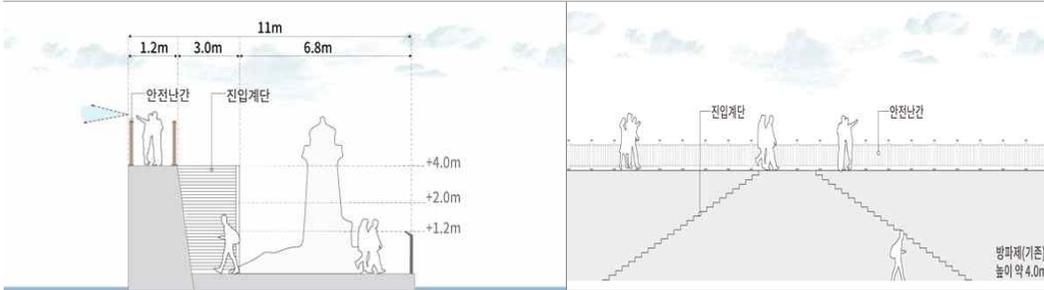
» (평가) 친수공간 수혜도 충분한 입지

- 소래 해오름공원에서 인천 신항대로, 바이오산업교 인근까지의 기존 보행축 주변으로 남동공단 및 소래/송도 생활권의 배후 인구가 충분하여 친수공간 조성 시 지역 수혜도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상지임.
- 고잔습지의 저어새 생태이야기, 우수한 갯골경관, 송도 도심권 야간경관 등 친수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로 선정.

3.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위치	중구 향동7가 82-10(제)	항만시설
규모	250m(친수보행로)	
사업내용	진입계단, 안전난간 및 보행로	A= 625(m ²)
사업추진방안	• 항만시설 비관리청사업	인천지방해양해수청
사업비	사업비: 760백만원(설계비 60백만원, 공사비 700백만원)	
연계사업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친수구역)	추진중 ('22.1.~'25.12.)



기본계획 단면도



대상지 사진

나) 대상지 선정배경 및 평가

» (배경) 연안부두 게이트웨이 경관감상공간 필요

- 역무선 방파제 진입부에서 연오랑 등대까지 거리가 약 500m에 달하고, 방파벽 높이 약 4m로 의해 경관 감상이 불가한 실정임
- 연오랑 등대 주변 전망데크가 기 조성되어 있으나, 방파벽 상부에서 외해와 인천대교, 입출항 선박 경관 감상이 가능할 친수공간이 필요함

» (평가) 차별화된 경관감상 공간 확보 가능

- 인천 연안부두 입출항 경관과 인천대교 등 새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이 가능한 대상지 입지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연오랑 등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방파벽 상부 친수보행로 조성을 통해 친수공간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는 입지임